

투데이 칼럼

고창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반대에 부쳐

전국 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수단으로 '기업유치'를 꼽고 있다. 유·무형 공력을 총동원해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기업유치는 '안정적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파급효과 증대'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기도 그렇다.



천 선미 고창군 부군수

고창군도 기업유치에 총력을 펴고 있다. 그 일환으로 고수면 육도에 '고창일반산업단지'를 구축하고 '기업유치추진단'을 구성해 기업유치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현재 55%의 분양률을 달성했다. (동우팜투메이بل도 그 중 한 곳이다. 동우팜은 고창일반산업단지 17만7439㎡(5만3760여평)에 총 2500억 원을 투자해 총 9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제시하며 입주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2020년 12월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동우팜이 공장을 준공하고 정상 가동에 들어갈 경우 연간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직접고용 노무비 295억 원, 간접고용 부산물 사내노급 노무비 110억 원, 생물운송 물류비 94억 원, 병동차량 물류비 108억 원, 지역상인 및 향토업체 소모품비 구입 24억 원 등 총 631억 원의 효과가 기대된다. 고창으로서는 결코 적은 규

모가 아니다. 더욱이, 동우팜은 임직원 자녀학자금과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 계열농가 시설현대화사업자금 지원용자 지원, 고창군민 우선채용, 각종 지역행사 직·간접 참여, 지역상생 프로그램 추진 등을 제시했다. 당시 추진단은 동우팜의 투자결정을 환영했다. 그런데 2020년 5월 고수면농민회와 경영인회가 주축이 되어 '투자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에 나섰다. 모든 사안에는 찬·반이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악취 때문에 창문도 못 연다 ▲폐수 등의 문제로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이 취소될 것이다 ▲공업용수 공

급으로 불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하루에 1만 톤의 폐수가 방류되어 청정고창이 오염된다 ▲동우가 들어와도 외국인들만 일할 것이다 ▲부동산 가치가 하락되어 군민 재산권이 피해를 입게 된다 등이다. 고창군도 지역주민 입장에서 똑같이 고민했던 내용들이다.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동우팜 측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지역주민의 우려를 전달했다. 고창군은 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전 '산업집적법 제33조(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검토했고, 동우팜 측에 그 내용을 전달했다. 또, 지역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전원기관 컨설팅 후 설계반영 ▲주민의견 수렴 후 설계 반영 ▲환경전문위원회 구성과 환경시설 검증 ▲외부기관 정기검사 실시 ▲환경감사단 감시활동 지원 등 주민들의 의견도 포함했다. 나아가 ▲설계시 제시한 기준치 준수 여부 검증 후 최종 공장등록을 승인한다는 고창군의 단호한 입장도 강조했다. 만일 조건 미이행시 공장준공 등록을 불허한다는 내용도 빠뜨리지 않았다. 동우팜측은 고창군의 이 같은 방침에 동의했고 환경보전, 지역인재 채용, 악취 배출방지시설 완비 등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적극 동참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기업유치를 반대하는 주민이 있는 만큼 고창군은 주민공론화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주민의 입장에서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고창군의 기업유치 목적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증대 ▲철저한 환경보전 ▲주민건강 보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도 고창군의 이 같은 노력에 대해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현재 '기업유치'는 지자체에겐 피할 수 없는 현실과제다.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자리는 기업이 제공한다. 전국 지자체들이 기업유치에 총력을 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친정권 총장 사퇴” 경찰과 충돌한 보이저시대 학생들



2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친정권 인사의 총장 임명에 항의하는 보이저시대 학교 학생들이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터키의 명문 대학인 이 학교 학생과 교수들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친정부 인사인 멜리호 불루를 총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몇 주째 반발하며 불루 총장의 사임과 대학의 총장 선출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페루 빈민들, 수입 없어 무료 급식소 의존



2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의 비아 마리아 빈민촌에 있는 무료 급식소에서 주민들이 기증받은 재료로 요리 준비를 하고 있다. 페루는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지난달 31일부터 2주간의 봉쇄에 들어갔으며 고정 수입이 없어진 빈민촌의 많은 가정이 무료 급식소에 의존하고 있다.

사설

롯데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문제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전주시는 다시 롯데와 손잡기로 했다며 2년 전 내놓은 개발 계획보다 좀 더 구체화된 개발안도 발표했다. 그러나 롯데에 유리하게 개발 계획이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막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지도 논란이다. 전주시가 발표한 종합경기장 부지의 개발 계획안을 보면 부지 동쪽에는 서신동에 있는 현 롯데백화점의 두 배 규모인 지하 4층 지상 7층의 백화점이 들어선다. 백화점 서쪽에는 추후 전주시에 기부하기로 한 지하 4층 지상 6층의 전시컨벤션 센터와 200실 규모의 호텔이 자리한다. 야구장 전체와 종합경기장 75%는 보존되고 미술관이 새로 건립된다. 전주시는 현재 전시컨벤션 센터와 호텔, 백화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행안부에 신청한 상태다. 이후 2022년 지방재정 투자 심사와 의회 동의를 마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착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전주시장이 처음

음주운전 시의원에 징역 2년 구형

전주지검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어느 시의원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해당 의원이 이전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의원은 지난해 4월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로 운전 중을 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4%였다. 1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그에게 1년간 당원 자격정지를 명령했다. 전북 도내 일부 시군의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종종 도마 위에 오르 고 있다. 도내 또 다른 어느 시의원은 과거 자신이 의장 재임 시절 전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까지 만들었다. 이 조례에는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 등이 세세하게 나열되어 있다. 주로 음주 형제 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주 예방 교육 등을 골지르 했다. 그러나 조례를 만든 장본인이 음주사고를 일으켰다.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자고 조례까지 만든 의원이 정작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결국 그는 거센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해당 시의회는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시의원 윤리 실천 규범 가운데 음주운전이 포함됐다. 그런데도 '면허 취소'와 '면허정지'된 해당 의원에겐 경고와 공개 사과, 출석 정지 등의 징계만을 했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지역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극히 일부 시군의원들이 방역 당국과 경찰을 보란 듯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 공개 사과와 함께 강력한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불미스러운 의혹이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려 공천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다. 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회 윤리특위를 통해 강력한 징계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 관행부터 바뀌어야 한다. 의원들은 수준 미달이라는 비난과 의회 무용론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